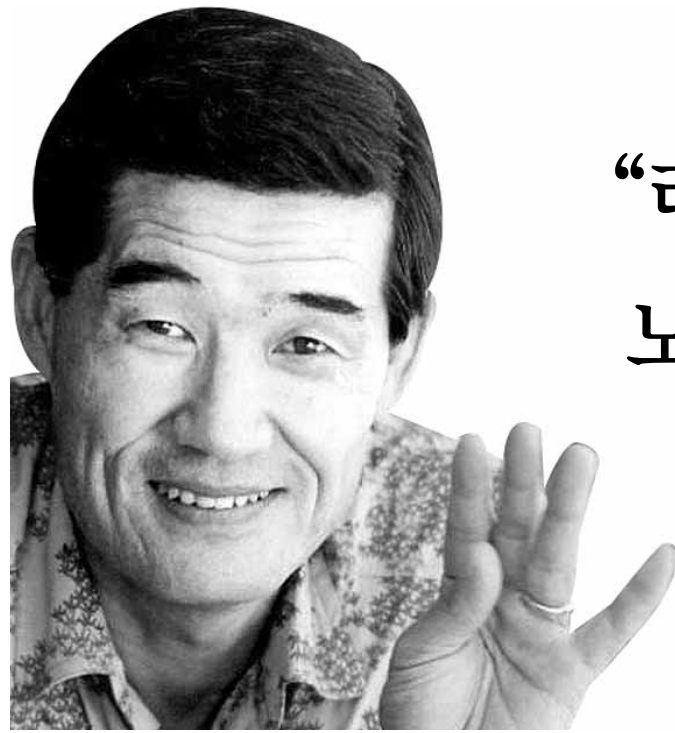


TV 2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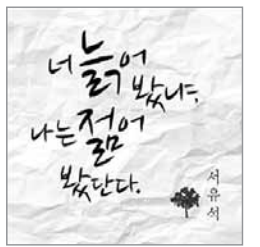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코모닝A	00 KBS 뉴스광장	00 2TV아침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 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폭풍의 여자>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제 끝판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40 지구촌 뉴스	30 생방송 오늘아침	25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황홀한 이웃>
9 00 신문이야기 들쭉구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일편단심 민들레>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인사이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트윈생활제	40 월화 드라마 <블러드>(재)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5 KBC 생활뉴스
11 30 이제 만나러 갑니다	00 KBS 네트워크 특선 춘추춘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그린실버 고양이 좋다	00 세계문화탐방 지구촌 축제
12 4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뉴스 12 55 바른말 고운말	55 이웃집 찰스(재)	10 MBC 정오 뉴스 20 MBC 네트워크 특선 여영차 바다(재)	00 SBS12뉴스 45 닥터 365 55 KBC 열린토론회(재)
1 50 김부정의 뉴스통	00 대조영(재) 55 TV동화 빨간자전거(재)		10 구리가식사교실 40 똑똑 키즈스쿨 스페셜	55 날씨와 생활
2	00 빛고를 행복이카데미	00 KBS 뉴스타임 10 인간극장 스페셜(재) 50 영마의 탄생(재)	30 어린이 직업탐험대 드림키즈 스페셜	00 네트워킹 현장 고향이 보인다
3 00 직언직설	00 콘서트 필(재) 40 남도 지오그래피(재)	45 후토스	00 MBC 뉴스 10 내사랑 똥 40 문화 4색	00 SBS 뉴스 10 구리가 탐구생활 스페셜(재)
4 20 쾌도난마	00 KBS 뉴스4 10 역사저널 그날(재)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40 TV유치원 콩다콩	25 MBC 일일특별기획 <압구정 백야>	00 공의 라이브 프리즘 스톤 30 내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5 3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 그래피	10 외계가족 즐리콜리 40 동물의 세계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슈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 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날씨와 생활 05 닥터365 10 KBC 생방송 투데이
7 10 닥터 지 바고	00 KBS 뉴스7 30 인순이의 토크드라마 <그대가 꽃>	50 일일드라마 <달콤한 비밀>	15 일일연속극 <달콤한 여자>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타지 떠따부따 20 일일드라마 <달려라 장미>
8 10 나는 몸신이다(재)	25 일일연속극 <당신만이 내 사랑>	30 반려동물극장(단편) 55 위기탈출 넘버원	55 MBC 일일특별기획 <압구정 백야>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블러드>	00 월화 특별기획 <빛나거나 미치거나>	00 월화드라마 <몽유병으로 들었소>
11 00 실화극장 그날	00 KBS 뉴스라인 40 TV, 책을 보다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5 공간다큐 <그곳>	15 힐링캠프 기쁜지 아니한가
12 20 모쿠드라마(재인)(재) ①:30 독한인생 서민감부(재)	20 해외결정드라마(닥터 후) ①:10 해외결정드라마 <삼총사>(재)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특파원 현장보고(재) ①:25 스포츠 이야기 운동화 2.0(재)	15 MBC 뉴스24 45 살맛 나는 세상 스페셜 ①:45 TV 예술무대	35 나이트 라인 ①:05 테마 스페셜 베스트



# “라디오 명퇴했으니 노래로 소통해야죠”

‘홀로아리랑’ 서유석  
25년만의 신곡 발표



“라디오 프로그램을 34년간 진행했으니 직장인이나 다름없었죠. 8년 전 라디오에서 ‘명퇴’(명예퇴직) 하면서 본격적으로 노래를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전화가 너머로 들려온 서유석(70)의 허스키한 목소리는 친근하고 익숙했다. 포크 1세대인 그가 1970~80년대를 가로지르며 들려준 노래뿐 아니라 수십 년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그 음색이었고, 수많은 연예인이 흥내 내던 성대모사의 오리지널 맡아줬다.

1970년대 ‘가는 세월’로 큰 사랑을 받은 서유석이 1990년 11집 ‘홀로아리랑’ 이후 25년 만에 신곡 ‘너 늙어봤나, 나는 젊어 봤단다’를 발표했다.

“라디오를 그만둔 뒤 음악을 다시 만들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지금 노인 세대가 사회의 심각한 문제이고 해방둥이인 저 역시 어느덧 그 세대가 됐더군요. 그런데 ‘홀죽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나’란 생각이 동기 부여가 됐습니다.”

“너 늙어봤나 나는 젊어 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란 가사로 시작되는 신곡은 쉬운 멜로디에 경쾌한 어쿠스틱 기타 사운드, 후렴구의 코러스가 조화를 이룬 컨트립풍의 포크송이다.

특히 사회의 중심축에서 한쪽으로 밀려난 노년층의 현실과 남은 삶에 대한 의지를 해학적으로 풀어낸 노랫말은 세대를 아울러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포용력이 있다.

“삼십 년을 일하다가 직장에서 쫓겨 나와 길거리로 내몰렸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배수자 부르지/ 월요일에 등산가고 화요일에 기원 가고 수요일에 당구장에서/ 주말엔 결혼식장 밖에는 삼가 집 ~ (‘너 늙어봤나, 나는 젊어 봤단다’ 중)”

그가 김민기, 양희은 등이 활동한 명동 YWCA 노래모임 ‘청개구리’ 출신으로 ‘철날 때도 됐지’, ‘피란 많은 세상’, ‘세상은 요지경’, ‘타박네’ 등 초창기 곡들부터 4집 ‘결정까지’까지 사회를 향한 풍자와 냉소에 가감 없었기 때문이다. 그의 노래들은 정권에 의해 금지곡이 되는 우여곡절도 겪었다. 신곡은 이보다 한층 정감 있지만 짝퉁 노래군 특유의 날은 무더지지 않았

다. 정곡을 찌르는 가사와 서민적인 정서는 공감의 폭을 넓혀며 입에 착착 붙는다. 그 덕에 이 곡은 음원 공개 전인 지난해부터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소리없이 강한 반향을 일으키며 퍼져 나갔다. 정식 발표 전에 썸세이다.

특히 화제가 된 건 지난해 6월 60대 어르신 네 명이 이 곡을 직접 연주하고 노래한 ‘나는 늙어봤나? - 60대 어르신 자작뮤비’란 제목의 영상이다. 16일 기준 유튜브 조회수 83만 건을 넘어섰고, 이후 생겨난 커버 영상들의 조회수까지 합하면 100만 건을 기록했다.

서유석은 “동세대의 마음을 치유하고 싶었고 젊은이들에게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일깨워주고 싶었다”며 “우리 세대뿐 아니라 젊은층도 이 곡에 공감했다는 댓글이 많아 고맙더라”고 말했다.

서유석은 3월 즈음 정규 앨범을 선보일 예정이다. “너 늙어봤나, 나는 젊어 봤단다”와 유행가 선배님이 선물해 준 곡까지 신곡은 2곡 담길다. 여기에 그가 그동안 사랑받은 노래인 ‘가는 세월’, ‘그림자’, ‘타박네’, ‘아름다운 사람’, ‘뚝 잘라 말해’를 함께 수록합니다.

1970년 신세기레코드가 발표한 유니버스 앨범에서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의 테마곡 ‘사랑의 노래’를 불러 데뷔한 그는 올해 데뷔 45주년이 됐다. 1976년 발표한 ‘가는 세월’은 당시 MBC와 TBC 가요 순위 프로그램에서 15주 동안 1위를 했고 여전히 국민 애창곡으로 불리고 있다.

그는 “패티김, 김부자 등 쟁쟁한 대형 여가수들이 참여한 유니버스 앨범에서 노래를 한 곡 불렀는데 이게 원만히 되면서 신세기레코드에서 1집 출시로 이어졌다”며 “데뷔로 치면 45년이지만 크게 의미를 두진 않는다. 그간 사랑 노래보다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은 노래를 부르려고 고민해 앨범을 쉽게 내기 어려웠고 방송 활동을 하느라 노래 부를 겨를도 없었다”고 돌아봤다.

“술, 담배를 안 하고 1주일에 서너 번 운동하고 주말에 테니스를 친다. 아직 목소리는 자신 있습니다. 하하.”

## SBS ‘아빠를 부탁해’ 설 특집 시청률 1위

13.5% ... MBC 다큐 ‘토토무’ 뒤이어

SBS TV ‘아빠를 부탁해(사진)’가 18~20일 지상파 방송 3사가 선보인 설 특집프로그램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20일 선보인 ‘아빠를 부탁해’는 시청률 13.5%(이하 닐슨코리아)로 연휴 3일간 방송 3사가 새롭게 내놓은 프로그램 중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부녀 관계 회복 예능’을 표방한 ‘아빠를 부탁해’는 이경규, 강석우, 조민기, 조재현 등 연예인 아빠와 그들의 딸들이 출연해 진솔한 부녀 이야기를 공개했다. ‘아빠를 부탁해’는 21일 오후 6시 2부가 방송되며, 내달 정규 편성될 예정이다.



MBC TV 프로그램이 그 뒤를 이어 시청률 2~4위를 차지했다. 20일 방송된 MBC 다큐 ‘토요일 토요일은 무도다’가 11.6%로 ‘아빠를 부탁해’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1990년대 가요 열풍을 불러일으킨 ‘무한도전-토토무’의 제작 과정을 다룬 멀티리 형식으로 만든 것으로 소지섭이 내레이션을 맡았다. 이어 18일 방송된 MBC ‘미스터리 음악쇼 복면가왕’이 9.8%로 3위를 차지했다. 연예인들이 가면을 쓴 채 등장해 노래 실력을 겨루는 프로그램으로 우승은 그룹 이엑스아이디의 솔지가 차지했다. MBC가 연휴편 내놓는 ‘아이돌 스타 육상 농구

풋살 양궁 선수권 대회’(아육대)도 인기였다. 19일 1부 8.5%, 20일 2부 9.3%를 기록했다. KBS 1TV 다큐 ‘설특집 오래된 청춘’ 1~3부도 18~20일 각각 5.2%, 9.5%, 7.8%를 기록하며 관심을 모았다. 91세의 피아니스트와 84세의 바다 사나이, 83세의 의사에게 ‘청춘’이란 어떤 의미인지 조명했다. 한편, KBS 1TV가 18~20일 방송된 영국 BBC의 다큐멘터리 ‘설특집 다큐 방시대의 거대 동물’ 1~3부도 각각 5.2%, 5.7%, 6.3%의 높은 시청률을 보였다.

## 한국 며느리 수경씨의 인도 시택살이

KBS 1TV ‘인간극장’ 오늘부터 방영

KBS 1TV ‘인간극장’은 23~27일 오전 7시50분 ‘커리와 된장’을 방송한다. 지난 2010년 방송된 ‘한국여자 수경 씨의 인도며느리 수업’ 이후 이야기를 담은 것으로 인도 남자 임피야즈 셰이크 알리(38) 씨와 결혼한 윤수경(35) 씨의 인도 생활을 담았다. 결혼 후 6년간 한국에서 생활했던 이들 부부는 지난해 6월 인도로 거처를 옮겼다. 시어머니의 자랑인 생선가래는 손도 못 대는 수경 씨와 한국 음식인 된장은 냄새만 맡아도 소리를 지르는 시어머니의 한집 살이는 쉽지 않다. 행운의 숫자 : 72. 88

래시장에서 가격충정을 한 후에 100원, 200원이라도 저렴하게 물건을 사야 성에 차지, 수경 씨는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물건을 사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낯선 인도에서, 많은 차이를 느끼는 시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수경 씨는 진한 향수병에 걸리고 만다. 그러던 어느날 수경-알리 부부는 딸 지아(4)를 친척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시부모님의 고향 킬카타 옆 작은 마을 마르텔라를 찾았다. 인구가 500명인 이 마을에 알리 친척만 300명이다. 잔뜩 긴장한 채 마르텔라를 찾은 수경 씨는 그러나 천사 같지만 한 시대 친척들의 환대에 마음이 풀어진다. 게다가 집에서는 잔소리만 많았던 시부모님들도 이곳에서는 “우리 수경이, 우리 수경이~” 하며 며느리를 챙기기 바쁘다. /연합뉴스

EBS

05:00 World News Review	09:40 부모(부모광장)	14:45 코코몽2	19:00 지파이티스
05:40 나의 성공비결	10:10 EBS 특강	15:00 신나는 오정 학교	19:30 EBS뉴스
06:10 EBS 인문학 특강(재)	10:40 최고의 요리비결	15:15 지구를 지켜라	19:50 대한민국 화해 프로젝트
07:00 코코몽2(재)	11:1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30 울리베아	<용사>
07:15 놀이터 구조대 뽀잉(재)	11:20 세계테마기행	15:45 피터 래빗	20:40 다크 오늘
07:30 풍선 꼬끼리 발루보(재)	12:00 EBS 정오 뉴스	16:00 당동명 유치원(재)	20:50 세계테마기행
07:45 꼬마버스 타요(재)	12:10 EBS 스페이스 공감(재)	16:20 놀이터 구조대, 뽀잉	<불이 시작되는 곳, 중국 광둥 홍콩 1부 - 홍콩의 새해맞이>
08:00 당동명 유치원	13:05 지식탐험대	16:35 오스카의 오아시스	21:30 한국기행
08:20 두다디콩(재)	13:10 생활백과	16:45 골디와 친구들(재)	<운동는 강원 1부 - 애 설악이여라>
08:35 방귀대장 뽀잉이	13:40 즐거운 수학 EBSMATH	17:00 방귀대장 뽀잉이(재)	21:50 EBS 다크프라임
08:50 골디와 친구들	13:50 사이먼 지구인 자격평가	17:15 풍선 꼬끼리 발루보	22:45 달라졌어요
09:05 원더 볼츠(재)	14:00 두기탐험대	17:30 꼬마버스 타요	23:35 세계 건문록 아틀라스
09:20 출동 슈퍼왕스(재)	14:15 우당탕탕 아이쿠	17:45 두다디콩	
09:35 아기고릴라 동동	14:30 부릉! 부릉! 브루미즈	18:00 생방송 특!특! 보니하니	

EBS플러스1      EBS플러스2

00:00 올림포스 <국어-알짜개념>	12:15 올림포스 <국어-알짜개념>(재)	07:00 2015 공민증개사 시현대비강자	16:20 " <국어 5-1>
00:50 " <고급 Basic Grammar-junior>	13:05 " <고급 Basic Grammar-junior>	07:30 9-7급 공무원 시현대비강자	16:50 " <국어 6-1>
01:40 " <문학-알짜개념>	14:00 2016 수능특강	08:30 검정고시시대비강자	17:20 백점공략 중학수학1
02:30 " <미적분>	<남공민의 국어 B형>	09:00 출제문 수학 EBS MATH	17:50 다크 오늘
03:20 " <수학 1>	14:50 올림포스 <문학-알짜개념>(재)	09:10 TV 중학 <국어①②>	18:00 TV 중학 <국어⑤⑥>
04:10 " <미적분>	15:40 " <미적분>(재)	09:50 " <수학(상)>	18:40 " <수학 3(상)>
05:00 뉴탐스런 <물리>	16:30 " <수학 1>(재)	10:30 " <역사 1>	19:20 필독 중학 한국사
06:00 " <생명과학>	17:20 " <미적분>(재)	11:10 " <국어③④>	20:00 EBS 기획특강
06:50 " <동아시아사>	18:10 뉴탐스런 <물리>(재)	11:50 " <수학 2(상)>	20:50 EBS 기획리조트
07:40 " <윤리와 사상>	19:10 " <생명과학>(재)	12:30 실천 취업가이드	21:40 EBS UCC 공모 나쁘디
08:30 2016 수능개념 <유해정의 국어>	20:00 EBS 스타강사 특강	13:10 등업 신공 <수학1(상)>	22:00 등업신공 <과학2(상)>
09:20 " <심주석의 수학>	<수학에 제대로 미치려>	13:50 " <과학1(상)>	22:40 " <수학3(상)>
10:10 2016 수능특강 <주석의 만점불패 영어>	20:50 2016 수능특강 <영어 a>(재)	14:30 " <수학2(상)>	23:20 필독 <사회1>
11:00 " <심주석의 수학 A>	21:50 " <수학a>(재)	15:20 만점왕 <국어 3-1>	24:00 왕기초 중학 <수학>
	22:30 최태성의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문화	15:50 " <국어 4-1>	24:30 백점공략 <과학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23일(음 1월 5일 庚午)

48년생 유통성이 부각지 이익을 부르리라. 60년생 소화에 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이다. 72년생 잘 정리하고 단장해 보자. 84년생 진행하기 보다는 잠시 정지해 있는 것이 더 생 산적이다.      행운의 숫자 : 67, 16	42년생 가까스로 반전되는 마당에 이르고 있느니라. 54년생 안정세를 취하면서 견고해지겠다. 66년생 생산적인 관계로의 국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78년생 절제된 언행이 뒤따라야만 성숙한 관계를 성립 시킨다.      행운의 숫자 : 34, 43
49년생 작은 이익을 꾀하더라도 명예까지 실추 될 수 있다. 61년생 확실하게 가둬놓지 않으면 맹청을 안게 되리라. 73년생 돌발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 85년생 일체의 기존 가치관을 뒤엎는 깨달음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59, 73	43년생 현하에 총살하다보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겠다. 55년생 결과적으로 그 어느 것도 쓸모가 없게 될 것이다. 67년생 유통성 있는 수완이 요구된다. 79년생 객관적이지 못하면 무의미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22, 35
38년생 발인은 최소한으로 하되 경정을 많이 하라. 50년생 함께 하는 것도 괜찮다. 62년생 어떠한 충격에도 변하지 않는 주관을 가져라. 74년생 재화와 연결 될 수 있는 정보를 얻게 된다. 86년생 어려운 판국이다.      행운의 숫자 : 79, 26	44년생 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효성이다. 56년생 주장 하는 것보다는 수용하는 편이 훨씬 낫다. 68년생 선택을 잘못하면 역전 될 수도 있다. 80년생 섬을 분명히 해둬야 뒤따라 있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04, 51
39년생 정성적으로 진행되리라. 51년생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63년생 피하러 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응하라. 75년생 확실하게 구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87년생 판세에 맞지 않는다면 부작용만 속출한다.      행운의 숫자 : 08, 27	45년생 벌여 놓은 것 못지않게 끝까지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57년생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성과가 크다. 69년생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81년생 변화무쌍한 상황이니 슬기롭게 대처해 나아가야만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60, 23
40년생 객관적으로 살펴보자. 52년생 매우 희귀하니 소중히 여겨야겠다. 64년생 무의미하다면 자제하는 것이 마명하다. 76년생 바라보는 각도를 약간만 달리한다면 많은 것들이 새롭게 보이게 되어 있다.      행운의 숫자 : 28, 50	46년생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고 보낸 대로 돌아올 것이다. 58년생 애매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물어봐서 확실히 해둬야 한다. 70년생 궁극적으로 성취하게 된다. 82년생 성곡의 향방을 좌우할 일이 생기게 된다.      행운의 숫자 : 15, 61
41년생 바이흐르 감성을 향해 진입하는 길목에 놓여 있다. 53년생 다시 없이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65년생 가장 근본적인 것에 원인이 있음을 알자. 77년생 주변인의 덕분에 호강을 하게 되는 모습이다.      행운의 숫자 : 42, 68	47년생 양자택일해야 할 길목에서 필히 갈등하게 되리라. 59년생 적극성을 띤 선택이 아니라면 곤혹스러워질 수 있다. 71년생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때다. 83년생 재정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 하겠다.      행운의 숫자 : 72, 88